

# 문화라운지

## 정음예술회관-전북발레시어터 내일 4개 단체 합동 발레공연 개최

정음예술회관과 전북발레시어터가 주관하는 가을밤을 여는 발레 갈라 콘서트'가 17일 오후 7시 정음사 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레리노 이원국, 박재홍(한성대학교 교수)가 이끄는 센트럴 발레단, 전라북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예진예술원, 정음과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전북발레시어터 총 4단체가 모여서 정음시의 밤을 아름답게 물들일 예정이다.

이원국 발레단에서는 차이코프스키 파드되와 해적 그랑파드되를 센트럴발레단에서는 돈키호테 하이리트를 전북발레시어터에서는 파우스트와 불처녀를 사예진예술원에서는 찰리 채플린 등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했다.

정음사 예술회관 관계자는 "전북발레시어터와 함께 다양한 단체들을 정음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음시의 새로운 예술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티켓비는 전석 민원이며 단체관람의 경우 50% 할인을 진행한다.

공연문의는 010-3563-1775 이다.  
/01병재기자·kanadasa@

## 동문예술거리 활성화 방안 논의 전주문화재단, 19일 제2차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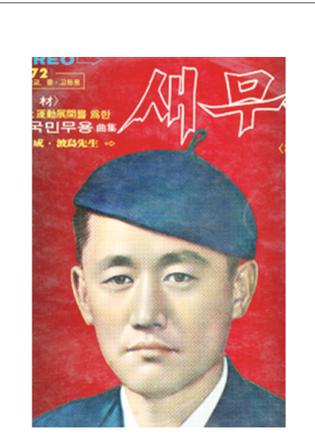
(재)전주문화재단에서는 '지역상생협력과 동문예술거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2차 동문동행포럼을 오는 19일 오후 3시 전주시민 놀이터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창연(創研 Creative Research&Consulting)의 오민근 대표와 한국정보통신의 오민권 대표가 각각 '전주한옥마을과 동문예술거리 연계방안', '전주한옥마을 방문객과 문화예술거리 상관관계 분석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한다.

전주도시혁신센터 도시재생 김창환 지원국장,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 문화체육 전문자 중구 박사, 익산문화재단 이태호 사무국장, 전북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이 발제내용에 따른 심층토론을 이어간다.

(재)전주문화재단 정정숙 대표이사는 "전문가 참여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동문예술거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다"고 말하며 "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예술가, 청년, 주민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과 동문예술거리의 정체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1병재기자·kanadasa@  
/편집=박선정기자·parks@



▲새new-0카이브



▲정치인아카이브



▲새농민아카이브

## • 서학동사진관 '사진가 구보씨의 경이의 방' 전시

# 제3공화국 박정희 시대 사진 속 기억의 소환

'독재정치와 경제개발' 논란의 주인공 제3공화국 박정희 시대를 중심으로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서학동사진관에서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사진가 구보씨의 '경이의 방')이다. '박정희 시대의 사진표상과 기억의 소환'이란 부제가 말해주듯 박정희 시대를 얘기한다.

1960~70년대(정확히는 1961년~1979년)는 한국사신사에 있어서도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엘리트 아파추어사진가들의 등장으로 모더니즘 사진이 모색되었고,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사진부가 신설되어 사진이 예술로 공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 사진과가 설치되어 사진의 전문화 과정을 밟았던 시기였던 것이다.

물론 이번 전시가 사진계를 중심으로 한 예술제도 안에서의 사진적 실천을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술제도 밖에서 생산된 사진 표상을 통해 박정희 시대를 살아왔거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개별 주체들의 다양한 기억을 소환하고자 한다.

소환된 기억은 그것이 추억이든 반감이든 또는 이질적이고 낯선 공간처럼 다가오든, 박정희 시대를 다기하게 분산시킴으로써 1960~70년대를 '하나'의 박정희 시대로만 읽어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한편 박정희 시대의 사진표상을 다루는데 있어서 반영론적인 읽기를 지양하고 사진의 작동 방식과 표상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령 박정희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의 하나는 '반공'인데, 이 전시는 반공담론 자체가 아니라 반공이 사진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대중과 만났는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반공의 효과'에 사진이 어떻게 공

모했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즉 반공에 대한 집단기억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공식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진이 시각매체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의 박정희 시대에 대한 인문사회학계의 다양한 평가 작업과는 결이 다른 사진 매체 중심의 시각문화사의 지평을 확장시켜줄 것이다.

전시는 '정치인이 사진수정사를 만났을 때'(정치인 아카이브) '간첩의 추억 1-별이 빛나는 밤에, 간첩과 라디오'(라디오아카이브), '간첩의 추억 2-중정(中情)식 분류법'(증거품아카이브)과 '반공의 일상, 일상의 반공'(반공아카이브), '동상의 시대, 기념의 시대'(동상사진아카이브), '재킷 콤플렉스'(새new-아카이브), '새농민-표상, 새농민표-상'(새농민아카이브), '새마을 주택 평형별 모델하우스'(농촌표준주택아카이브)와 동영상으로 구성된 '테이프 커팅과 새마을 가꾸기'(근대화 아카이브) 등 모두 9개의 아카이브로 '경이의 방'이 꾸며진다.

한편 '사진가 구보씨의 '경이의 방'은 사진아카이브연구소에 소장된 사진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아카이브 기획 전시이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서울 'SPACE22'에서도 열렸다.

김지연 서학동사진관 대표는 "사진이 권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전시로 한국사 진사의 한 맥락을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개막초대는 21일 오후 4시.  
/01병재기자·kanadasa@



▲반공아카이브

사진아카이브연구소 기반  
18일~11월 5일까지 전시  
:  
60~70년대 키워드 '반공'  
사진 속 효과·영향력 주목  
정치인·증거품·새농민 등  
총 9가지 아카이브로 구성



▲증거품아카이브



▲증거품아카이브\_1

## 전북도립미술관 '빛으로 물든 가을' 전



▲하반영, 모악산 가을, 캔버스에 유채, 50x66cm, 2005

## '캔버스속가을' 그설레임을 만나다

### 송계일 · 고하반영 화백 작품 등 주제관련 미술관 소장품 총 22점 오늘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전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에서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주말 및 휴일은 휴관),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빛으로 물든 가을'전을 개최한다.

학에서 인턴십들이 기획한 전시로 '가을'의 설레임을 담아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소장품은 미술관이 추구하는 방향과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이므로 소장품 전시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고 크다.

이번 전시에는 도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따스한 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을 담은 작품 22점을 선보인다.

전북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는 원로작가 송계일의 작품 '산의 노을'은 가을 산

의 이미지를 작가의 주관적 색채 해석과 형태의 단순화를 통해 표현하였다.

전형적인 구도와 배치를 이룬 화면, 가을 정취가 묻어나는 색채에서 역량을 갖춘 미술가 고하반영의 향토적이며 안전한 정서가 담긴 '모악산 가을', 캔버스를 통해 마이산의 생동감과 편안한 느낌을 전달하는 '진안 마이산'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이번 봄부터 늦가을까지 사시사철 변해가는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담담하고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는 미술가 소훈의 작품 중 갈대 숲 사이로 홀로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그려낸 '늦가을-떠뚱'은 무수한 고독과 우수를 자아낸다.

조각가 배형식의 '새치미'는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탐구해서 대상의 외적인 질감을 추구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안정되고 완결미가 있다. 과정이나 과욕이 없는 차분함이 보는 이에게 감동을 선물한다.

/01병재기자·kanadasa@

## 최기우씨, 전북작가회의 '작가의눈 작품상'

전북작가회의(회장 김병용)가 시상하는 '제8회 작가의눈 작품상' 수상자로 극작가 최기우(45·전주대 한국어문학과 겸임교수·시인) 씨가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희곡 '달룽개'.

심사를 맡은 이병천·안도현·북효근·김병용 작가는 "극작가 최기우는 전라북도 연희 전통을 충실히 계승했음은 물론, 현대적인 재창조의 선봉에서 있다"면서 "그의 희곡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쓰기가 자신의 글 안에서 즐거워하고 재미지게 되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최기우 씨는 "연출가와 배우가 아니라 문학을 하는 선배들, 삶의 동력인 선배들이 희곡을 읽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

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전주 출신인 최기우 씨는 2000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소설)로 등단했으며, 전북 콘텐츠를 소재로 연극·창극·뮤지컬·창작관소리 등 무대극 집필에 힘을 쏟고 있다. 희곡 '상봉'(2003)과 '은향나무꽃'(2014)으로 전국연극제 희곡상을 두 차례 수상하는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다. 현재 최명희문화관 학예연구실장과 새문화연구회 대표, 예기보 때리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01병재기자·kanadasa@

**오늘의 운세**  
제공 운영철학가 안연창 (063)274-1666  
10월 16일 (음 9월 27일)

<p><b>쥐</b> 밤심하다 손해보는 일이 허다하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술 학문에 발전, 계약전에 길하다. 변화와 발전이 무성한 가운데 용기로서 만반을 돌라 하리라. 남의 아내와 부정한 일로 패기방산하니 자중하고 자신을 다스리라. 음식을 조심하라. 차 조심.</p>	<p><b>소</b> 바람이 일어나 구름이 견하니 하늘과 바다가 함께 화기하다. 일이 해결되었다고 방심하면 불의의 화가 있다. 부모 상사에 근심 있다. 상사와의 불신주의, 조심묘를 살펴보고 정성껏 기도하라. 신체손상을 주의하라.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 이별수를 극복하리라.</p>	<p><b>범</b> 지금은 자기가 본 실력과 정체를 감추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현명한 처세라 하겠다. 지위나 신분이 동요하고 동료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크다. 내부 불안, 손재, 투쟁이 일어나니 급한 마음으로 덤비면 패하리라. 이성간에 애정으로 인한 오해로 풍화가 있다. 차 조심.</p>	<p><b>토끼</b> 가정의 불화, 주위 사람과의 갈등 등으로 복잡한 심경과 슬럼프에 빠질 염려가 많은 운세다. 법률문제는 대홍의 징조 보이나 피하는 것이 좋다. 가족 건강에 유의하고 도적을 조심하라.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고 주색에 빠짐을 경계하여 삶의 근원을 지켜라. 차사고 조심.</p>
<p><b>용</b> 새벽 닭이 울었으니 날이 밝기 시작한다. 운이 서서히 트이고 있다. 금전 거래상 손해를 무리하게 해결할 생각 말고 인내로써 조용히 넘겨라. 구설이 있으나 결과는 밝일 것이다. 매사에 불평하지 말고 자중하라. 매에 있어서의 상대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으니 조심.</p>	<p><b>뱀</b> 안전 보험세가 이루어지는 운세이지만 방심하여 색정에 빠지기도 쉬운 운세임을 명심하라. 이 사하면 손해, 생사 극복하리라. 어려운 일은 중재자를 선택하여 해결하라. 가정불화를 잘 다스려 나가라. 애정문제에 길사가 있으며 재물이 좋다. 소화계통 장애 조심하라.</p>	<p><b>말</b> 희소식이 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부터 바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부탁해 보고 부딪혀 보라. 관광 사업에 길사가 있으리라. 상화가 화동하고 매사가 자연히 성사될 징조 보인다.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라. 경계망동 하지 말고 매사에 신중한 태도로 임하면 길.</p>	<p><b>양</b> 함부로 나서려 하지 말라. 앞에는 독사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 불평 불만의 경계, 선조나 옛 사람 견로 지출이 있다. 사소한 시비는 따지지 말라. 해외진출이나 타지 여행은 길하다. 부부가 서로 품평을 의심하나 실상은 별일 없으니 서로 믿고 의지할 것. 과음을 경계.</p>
<p><b>원숭이</b> 지금은 천지의 기운이 화기하게 움직이고 있는 때이므로 여기에 인간의 힘이 가세된다면 글자 그대로 천지인 삼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재정상 지출이 많으나 나중에는 성공하리라. 구설과 오해로 재정상 피해가 크니 각별 조심하라. 위 질환을 조심할 것.</p>	<p><b>닭</b> 행운의 복권을 사볼만한 날이다. 가환을 조심할 것. 심기 일신하여 예의를 지키면 천운신조하리라. 외국 진출, 또는 직업의 변동은 지금은 불리하나 장차는 유리하리라. 차사고 기계류의 취급을 조심하라. 우연히 길한 일을 만나나. 운동과 식사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p>	<p><b>개</b> 자신이 힘을 얻으니 백학이 제 동우리를 찾는다. 돌발 사고에 유의할 때다. 문서에 기쁜 일이 있으니 사람과 더불어 좋은 일을 도모하라. 용약 과다성을 가지고 계획변동을 단행하면 만사 형통. 우연히 계획을 세워 당당히 행하라. 구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차사고 조심.</p>	<p><b>돼지</b> 내실에 소홀하고 외형에 치우치지 쉬운 때다. 과분한 계획이나 새로운 일을 생각하기 쉬우나 절대로 금물이니 전면 수정하거나 중단 할 것. 이상의 같은 이별 조심. 인습 인정에 구애되지 말고 은밀히 계획을 세워 당당히 행하라. 구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차사고 조심.</p>

KBS1	KBS2	MBC	JTV	EBS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속으로	6 00 휴먼다큐 사림이종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부 25 모닝와이드 2부	0 오 전 07:00 허봉선이 과학소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몰! 슈퍼월드 08:00 동물대장 유치원1 08:10 요술간지 크레임 08:20 동물대장 유치원2 08:30 풀리워킹 하트 08:45 방구대장 뽕쟁이 08:50 키키 09:15 소피 루비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0:30 한기여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12:40 세상의 모든 밥집 12:45 과학다큐-비운의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7 00 MBC 뉴스투데이 20 오늘 플러스 7:50 훈장 오순남 30 생방송 오늘 아침	00 JTV 아침뉴스 30 모닝와이드 3부 30 아침연속극 (달콤한 원수)	0 오 후 1:40 얼마를 찾지마 시즌2 2:30 레디디버그 3:00 우주탐험기 썰 3:15 꼬마기사 마이코 3:30 오드보, 이산한 아이들 3:45 부흥! 부흥! 브루투스 4:00 얼마 깨우라 4:15 두디디랑 4:30 방구대장 뽕쟁이 4:45 동물대장 유치원1 4:55 요술간지 크레임 5:10 동물대장 유치원2 5:15 로보카 폴리 5:30 강철소년대 피어오르보 5:45 호기심소년 드트 6: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1 6:05 동물대장 고고다이노 6:2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2 6:4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3 6:45 특목! 우리 몸 X파일 6:55 특목! 보니 하니4 7:00 로보 발명왕 러스티 7:30 EBS 뉴스 7:50 디문화 고부열전 스페셜 8:40 다큐 오늘 8:50 세계테마기행 9:30 한기여행 9:50 EBS 다크프라이미 10:45 얼마를 찾지마 시즌2 11:35 가짜뉴스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8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30 KBS 뉴스	00 TV소셜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9 50 20세기 소년소녀	10 SBS 뉴스 25 시사기획 판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살피하는 남자들	10 00 푸리가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00 SBS 12뉴스 30 JTV 뉴스 50 클릭 이사람 20 JTV 토크	10 SBS 뉴스 25 시사기획 판	
00 UHD 명품역사관 장영실 50 UHD 한식 00 KBS 뉴스12 30 영상앨범 산	50 마녀의 법정	11 10 문화사색	10 SBS 뉴스 25 시사기획 판	
00 넷워크 기획 문화신화 50 Today 전북 스페셜 00 별미 책방 50 공감 토크(결)	50 다류 공감	12 10 문화사색	10 SBS 뉴스 25 시사기획 판	
20 풀도람상 4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4시 뉴스집중	50 자동차부속상 위키 2	1 10 문화사색	10 SBS 뉴스 25 시사기획 판	
00 KBS 뉴스 5 10 KBS 전주 스페셜(장인)	00 영상앨범 산 30 VJ특공대	2 10 멜로키즈 이하 동물탐험대 2 45 드림 주니어 스페셜	10 SBS 뉴스 25 시사기획 판	
00 6시 내고향 55 UHD 한식	30 2TV 생생정보	3 15 사이언스스타	10 SBS 뉴스 25 시사기획 판	
00 KBS 뉴스 7 35 한글날 특집 불로우 한국어 25 일일연속극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50 일일드라마 <내 남자의 비밀> 30 글로벌 24 55 제보자들	4 15 경제매거진 M 스페셜	10 SBS 뉴스 25 시사기획 판	
00 KBS 뉴스 9 40 가요무대	00 영상앨범 산 30 VJ특공대	5 10 생방송 오늘 저녁	10 SBS 뉴스 25 시사기획 판	
40 KBS 뉴스라인	00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6 15 생방송 오늘 저녁	10 SBS 뉴스 25 시사기획 판	
10 월요기획 <몸의 재발견> 10 이웃집 살스 *1:50 생활의 발견	10 일일드라마 <마녀의 법정>	7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3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55 별별머느리	10 SBS 뉴스 25 시사기획 판	
00 KBS 뉴스 9 40 가요무대	00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8 10 생방송 오늘 저녁	10 SBS 뉴스 25 시사기획 판	
10 월요기획 <몸의 재발견> 10 이웃집 살스 *1:50 생활의 발견	10 일일드라마 <마녀의 법정>	9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3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55 별별머느리	10 SBS 뉴스 25 시사기획 판	
00 KBS 뉴스 9 40 가요무대	00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10 10 생방송 오늘 저녁	10 SBS 뉴스 25 시사기획 판	
10 월요기획 <몸의 재발견> 10 이웃집 살스 *1:50 생활의 발견	10 일일드라마 <마녀의 법정>	11 10 생방송 오늘 저녁	10 SBS 뉴스 25 시사기획 판	
00 KBS 뉴스 9 40 가요무대	00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12 10 생방송 오늘 저녁	10 SBS 뉴스 25 시사기획 판	
10 월요기획 <몸의 재발견> 10 이웃집 살스 *1:50 생활의 발견	10 일일드라마 <마녀의 법정>		10 SBS 뉴스 25 시사기획 판	

※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문의) KBS 270-7321 MBC 220-8064 JTV 250-5222 EBS (02)522-8020